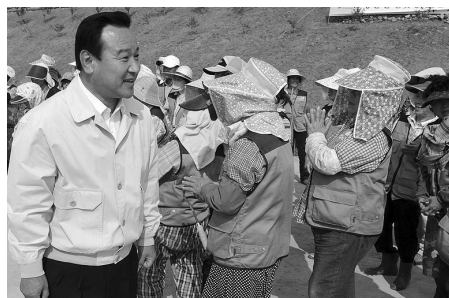


충남의 희망근로, 첫삽 순항중

- 하루 참여인원 11,017명(목표인원 10,438명의 132%)



충남도는 지난 5월 "희망근로 프로젝트 TF팀" 구성에 이어 사업비 총 716억원을 확보하고 도내 992 사업장에 목표인원(10,438명)의 106%에 해당하는 11,017명을 투입하여 일제히 희망근로 사업을 시작했다. 희망근로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타 시도와 차별화한 수요자 중심의 주민창안 일자리(LIP) 사업을 전국 최초로 마련하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소비

비진작 효과가 큰 5대사업을 선정, 충남의 대표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금번 희망근로로 시작하는 주민창안 일자리(LIP) 사업 중 도에서 심사 후 확정된 사업으로 3개 사업에 47억원을 투입하여 42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군에서 심사 후 추진할 LIP사업은 총 25개 사업(24억, 일자리 428개)을 추진하게 된다.

도에서 확정된 LIP 사업으로는 ▲지하수 방치공 찾기 사업(1,936백만원을 투입, 400개 일자리 창출) ▲공공미술 벽화그리기 사업(152백만원을 투입, 23개 일자리 창출) ▲행복찾는 콘서트 사업(207백만원을 투입, 24개의 일자리를 창출)이다

또한, 충남을 대표할 랜드마크 사업으로 5대 분야 15개 사업을 선정, 총 102억원을 투입 1,907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으로써 전체적인 희망근로 사업을 선도해 나가고, 시군에서 총 40개 사업을 선정(127억원 투입, 일일 2,270명 투입)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에서 추진할 충남 5대 랜드마크 사업으로는 ▲태안 꽃박람회 후속으로 태안경제 살리기 사업(50억을 투입, 998개의 일자리 창출(태안)) ▲금강사랑 탐방로 정비사업(12억을 투입, 109개 일자리 창출(공주, 부여, 연기, 서천)) ▲하천살리기 환경식물 식재사업(5억을 투입, 98개 일자리 창출(공주, 보령, 아산, 서신, 논산, 연기, 당진)) ▲동네마당 조성사업(15억을 투입, 302개 일자리 창출 (공주, 금산, 서천, 홍성)) ▲폐 지하관정 복구를 위한 조사사업 (19억을 투입, 400개 일자리를 창출(16개시군))이다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 윤곽 드러나

- 초광역적, 초월경적 서해안 산업·관광 융복합 골드벨트 조성



충남도는 5월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동완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 및 시군 관련공무원과 국토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진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및 첨단산업벨트 구축 ▲해양생태 체험테마형 해양관

광벨트 조성 ▲공항·항만 물류체계 구축을 핵심사업으로

국가기간산업인 철강, 첨단자동차, IT, 석유화학 등을 기반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확대 농축산바이오 융합 6차산업화 ▲농업고도화 및 녹색성장 지원사업 ▲안면도국제관광지와 태안 관광레저형기업도시 등을 연계한 융복합산업벨트 조성을 통해 국제비즈니스 및 산업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서해안 개발 계획이 제시됐다.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은 서해안권 4개 시·도가 상호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창출이 가능한 사업들을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연계하는 초광역적 국경을 초월한 초월경적으로 수립하는 광역적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공청회와 서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를 거쳐 발전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9월 국토해양부 승인신청을 거쳐 연말까지는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함께 떠나요.... 신나는 충남 여행!

- 道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주변 관광상품 홍보활동 전개

충남도가 5월 28일 대전↔당진,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개통에 맞춰 5월 30일 고속도로 주요 톨게이트 6개소(공주IC, 당진 면천IC, 청양IC, 부여IC, 서천IC)에서 충남관광 홍보물과 관광지도 등을 배포하는 홍보활동을 벌였다.

- ▶공주IC : 주요 관광지 - 무령왕릉, 공산성, 국립공주박물관 / 인근 먹거리 - 청벽장어, 공주칼국수, 파로국밥
- ▶마곡사IC : 주요 관광지 - 마곡사, 마곡장승마을, 온천관광지 / 인근 특산물 - 공주알밤, 신평고추, 표고버섯
- ▶유구IC : 주요 관광지 - 유구직물단지, 외암민속마을, 온양온천지구 / 특산물 - 유구직물, 연엽주
- ▶신양IC : 주요 관광지 - 예당저수지, 봉수산자연휴양림 / 인근 먹거리 - 수덕사 산채정식, 삼다리곰창, 소복갈비
- ▶고덕IC : 주요 관광지 - 예산 화전리 사면석불 / 먹거리 - 고덕갈비
- ▶면천IC : 주요 관광지 - 솔피성지, 합덕수리박물관, 삽교호관광지, 왜목관광지, 함상공원, 서해대교 / 먹거리와 특산물 - 두견주, 면천어죽, 당진꽃게장, 각종 해산물과 건어물
- ▶청양IC : 주요 관광지 - 칠갑산, 천장호, 장곡사, 다락골줄무덤, 칠갑산자연휴양림, 고운식물원 / 인근 먹거리와 특산물 - 청양고추, 구기자, 참깨매운탕
- ▶부여IC : 주요 관광지- 백제역사재현단지, 고려인삼창, 부소산, 정림사지, 궁남지 / 인근 먹거리 - 장어, 우여회, 연잎밥
- ▶서부여IC : 주요 관광지 - 서동요테마파크, 무량사 / 인근 먹거리 : 산채비빔밥, 한방오리, 추어탕
- ▶동서천IC : 주요 관광지 - 금강하구철새도래지, 신성리 갈대밭, 한산모시관 / 인근 먹거리 및 특산물 - 해산물, 추어탕, 복탕, 한산모시, 한산소곡주

도관계자는 고속도로 개통으로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돼 도내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앞으로 고속도로변 주변 주요 관광지를 코스별·테마별로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듀! 꽃들의 대향연이여...

-환희와 아쉬움 뒤로한 채 역사 속으로



술한 화제와 여운을 남긴 2009안면도국제꽃박람회가 5월 20일, 장장 27일간의 대장정을 마감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세계 22개 나라 121개 업체와 단체, 정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달 24일 공식 개장한 안면도 꽃박람회는 당초 목표 110만 관람객 유치를 크게 뛰어넘어 그간 총 입장객 200만명이라고 하는 기적적 대기록을 달성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안면도가 지난 2002년 꽃박람회를 계기로 꽃과 새들의 낙원으로 변모하면서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탈바꿈하였듯 이번 꽃박람회를 계기로 다시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태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모멘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꽃지 주전시장과 인근 수목원 부전시장 등 총 79만3천여㎡의 대평원위에 7개 실내전시관, 15개 야외 테마정원, 20개 소원(小園)에서는 그간 송례문 토피어리를 비롯해 '불에 타도 꽃피는 나무' 그래스트리, 세계적으로 처음 선보인 아이스크림 튜립, 이소연의 우주꽃 등 다양한 킬러콘텐츠가 관람객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당초 110만 관람객 유치목표 아래 3,100명 고용효과와 1,600억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예상되었으나 목표를 크게 초과달성하면서 그 유발효과와 향후 후광효과는 단순 배수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조직위 권희태 사무총장은 "천혜의 관광보고 안면도에서 세계적인 꽃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러 내게 돼 무엇보다도 기쁘다"며 "이번 꽃박람회를 계기로 검은 바다를 청정해역으로 뒤바꾼 것처럼 온 국민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발전연구원, 개원14주년 기념식 가져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6월 12일 개원 14주년을 맞아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김용웅 원장을 비롯한 이인배 연구실장, 박유신 사무처장 등 연구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 공공디자인센터 권영현 연구위원과 사무처 김정희 계장에게 10년 근속 감사패를 수여하고 오후에는 체육행사도 가졌다.

연구원은 지난 1995년 6월 총 11명으로 시작하여 현재 40명으로 늘어났으며, 이중 연구직 27명이 지난해에만 기본과제, 기획과제, 현안과제 등 총 181건의 연구실적(디자인부문 77건 및 연구구성사업 53건 제외)을 올려 1인당 6.7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또한 소도읍육성사업 선정,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 총 829억원의 국비 확보 및 예산 지원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김용웅 원장은 기념사에서 "우리 연구원은 충남 도정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짧지 않은 14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며 "우리는 앞으로 200만 충남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용 연구에 매진하는 것이 연구원의 경쟁력이자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토대 마련

- 충청권 IT 산업의 활성화 방안 워크숍 개최



아산시는 5월 28일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이명수 국회의원, 강희복 아산시장, 학계 전문가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충청권 IT 산업의 활성화 방안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충청남도과 충남발전연구원이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는 아산만권 광역경제권 중심의 New IT 산업벨트와 기초과학을 연계한 산업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워크숍은 개회식에 이어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제발표에는 편경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장과 순천향대학교 양광식 교수가, 종합토론에는 산업연구원 김선배 연구위원 등 전문가 10여명의 토론자가 참여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편경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장은 “정부가 2015년까지 총 3조 5,487억원을 투자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은 오는 6월중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정 후 최종 입지 선정에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밝히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의 비전인 기초과학의 획기적인 발전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세계일류국가 창조를 위

해 주요 추진과제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전략과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또, 양광식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아산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능지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천안 등 주변지역과의 연계발전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전략산업의 핵심원천기술개발을 통한 산업인프라 특화, 비즈니스 환경 강화, 지속가능한 녹색생활환경조성을 통한 도시네트워크화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사에 참석한 강희복 아산시장은 “아산시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의 기능지구로 지정될 경우 기초과학연구를 중심으로 한 거점지구와 연계하여 『생산+비즈니스+연구기능』의 복합화로 충청권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시너지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면서 “New IT융합산업과 신재생에너지복합산업의 특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능지구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유치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아산시는 그동안 배방사이언스밸리조성사업 및 플렉서블디스플레이 R&D센터 설립 추진 등 차세대 전략산업을 통한 IT기반의 그린반도체산업 성장 거점 구축을 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유치를 위해 꾸준히 준비해 오고 있다.

6조 3,561억원 생산유발 효과, 40,121명 고용증가 발생

- 고속도로 주변 주요 지역간 양극화 해결 급선무
- 대전~당진,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오는 28일 대전-당진,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개통식을 앞두고 충남의 연계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 CDI)은 5월 25일 오후 2시부터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도 김동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학계, 언론계,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당진,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충남의 발전 전략"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두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충청권이 2시간 내 생활권으로 묶이면서 발생할 다양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고속도로 주변 거점과의 연계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주대학교 김경석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기존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사례를 통해 볼 때, 분령 개통 이후 서산, 당진을 중심으로 연평군인구 감소폭이 둔화되었고, 제조업체 및 제조업체중사자수의 증가율은 개통 이후 6년간 전국평균 0.7%보다 약 2배가 높은 1.33%로 나타났다. 즉,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간구조의 변화 등 여러 부문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충남의 공간구조가 서해안선과 경부축의 2개 남북축의 형태에서 이제 동서연결의 H자형 발전축이 형성되며, 장기적으로 서천~공주축이 연장 발전할 경우 X자형 공간구조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특히 대전~당진 개발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신도시, 황해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지속·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이들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물류수송시간 단축, 비용 경쟁력 강화 등 기회요인



을 제공함으로써 IC 주변 10km 이내에 다수의 공장이 입지하는 등 산업발달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높고 낙후된 지역산업의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말하면서도 "생활권의 광역화로 인해 매력도와 흡인력이 낮은 시·군의 경우에는 주변 큰 도시 혹은 매력도가 높은 도시로

인구 이동이 생겨 개발소외지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속도로 IC 및 종점부 주변 개발과 연계도로 확충을 통해 아울렛, 쇼핑단지와 같은 유통산업과 물류·제조산업의 확대 등 지역별·거점별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고속도로가 수요에 따른 고속도로 건설이 아닌 건설을 통한 수요 창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충남발전연구원 김정연 선임연구위원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과 함께 일부 낙후지역의 쇠퇴 및 공동화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보고 "충청광역권 형성을 선도하는 새로운 개발축으로 삼되, 고속도로 IC 연결부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선도개발하고 도농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농촌 경제 다각화와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통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속도로 IC 연결부의 난개발 및 토지투기에 따른 지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감시와 적절한 토지이용 규제를 통해 환경친화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선임연구위원은 "대전-당진,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IC를 중심으로 거점을 마련하고, 이를 7개의 개발권으로 묶어 연계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고속도로 주변지역에서는 도로망을 중심으로 자원과 자원간, 고속도로 IC와 개발거점간, 개발거점과 개발거점간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지역자원 활용 및 클러스터 형성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특히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문화·관광자원 등 지역자원 활용의 고도화를 지원하는 산업·관광도로망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는 국제항만과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

고 있는 대산까지 조기에 연장 건설되어야만 충청광역경제권 형성을 선도하는 개발축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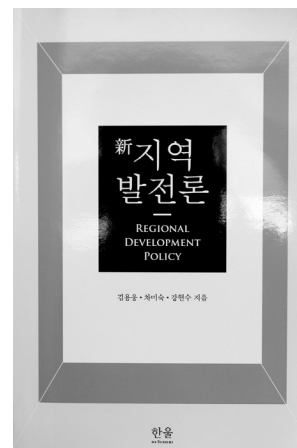
마지막 주제발표자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성진 연구위원은 "두 고속도로 개통으로 충남을 찾는 방문객은 대전 및 영남권을 중심으로 증가가 예상되지만, 현행대로라면 고속도로 종점과 통과 지역의 관광효과는 양분될 가능성이 높고,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것은 동시에 당일관광 등 지역 이탈율도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언급하면서,

"최근 제주올레가 대표관광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듯이, 무엇이 '충남다움'인지에 대한 재성찰을 통한 주요 관광상품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고, 지역의 이미지, 장소, 시장 등의 연계 협력을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충남관광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종합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도 김동완 행정부지사는 "두 고속도로 개통은 서해안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써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인근의 관광객을 서해안과 농촌지역으로 유인하는 등의 관광모델을 발빠르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한남대학교 정순오 교수의 진행으로 목원대학교 김혜천 교수, 공주대학교 정환영 교수, 충청남도 이기춘 건설교통국장 등이 참석하여 두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다양한 발전 방안들을 함께 논의하였다.

충남발전연구 김용웅 원장, 「新지역발전론」 출간



도시 및 지역개발 전문가인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이 국토연구원 차미숙 연구위원, 중부대학교 강현수 교수와 함께 최신 대두되고 있는 지역발전 이론과 정책을 집대성하여 한국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新지역발전론」을 펴냈다.

이 책은 지난 2003년 출간되었던 「지역발전론」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지난 6년간 국내외 지역정책의 변화된 환경과 전략을 반영하고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성공적 추진이라는 정책적 요구를 수용하고자 했다.

그리고 국내외 지역발전정책의 전개 과정과 사례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어, 지역개발 및 지역정책 분야의 전공서는 물론이고 정책 연구자와 실무자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참여정부와 현 정부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규제정책, 국가균형발전정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방분권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 등을 비교·분석하여 신지역발전정책 방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눈에 띈다.

충남발전연구원 정옥식 박사, 세계 3대 인명사전 모두 등재



충남발전연구원은 5월 11일 환경생태연구부 정옥식 박사(38세, 사진)가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미국인명연구소(ABI, 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로부터 2010년 판 '21세기 위대한 지성(Great Mind of the 21st Century)'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 박사는 지난 4월 등재를 통보받은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2010년 판과, '국제인명센터(IBC,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er, Cambridge, England)'가 발간하는 인명사전인 '21세기 탁월한 2,000명의 지식인(2000 Outstanding intellectuals of the 21st Century)' 2010년 판에 이어 세계 3대 인명사전 모두에 등재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경남 진주 출신으로 경희대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조류학회 총무이사로도 활동중인 정 박사는 최근 "생물다양성 국내외 현황 및 확보 방안(2008)", "동북아시아 독수리 이동경로에 대한 연구(2007)", "큰부리바다오리의 국내 첫 관찰 보고(2007)" 등의 논문 발표를 통해 야생조류보호관리 전문가로 이름을 알려 왔다.

충남발전연구원, 2008년도 우수연구성과 발표회 가져

- 연구보고서의 정책활용도 제고 및 개선 방안 위해 노력할 터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 CDI)은 4월 29일 오후 2시부터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학계, 언론계, 관계 공무원 및 연구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연구성과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발표회는 충발연구이 지난해 연구했던 과제 중 기본과제(1년간 연구원 1인당 1과제 수행) 21건과 기획과제(공모를 통한 외부전문가 수행 연구) 16건 중 분야별 우수한 연구성과를 각 3건씩 선정, 정책활용도를 높이고 연구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이해관계자와의 도정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발표된 우수연구과제는 오용준 책임연구원의 "비도시지역 공장입지관련 개발행위허가와 지구단위계획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을 비롯한 기본과제 3편과 목원대학교 이재우 교수의 "충남서북부권 준산업단지·공장입지유도지구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등 기획과제 3편이다.

김용웅 충발연구 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도정 발전을 위한 연구원들의 수고가 사장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오늘 발표되는 6편의 과제도 중요하지만 하나

하나 심혈을 기울인 과제 모두가 소중한 결과물이 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앞으로 연구성과물에 대한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개발연구원 조응래 부원장은 '지방연구원 연구성과의 정책활용도 모색'이란 기조연설에서 "연구기관의 연구성과는 학문적 기여에서 실용적인 연구, 정책적 기여도가 높은 연구로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연구성과의 정책활용 방안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핵심적 정책 및 대응논리 개발 ▶한발 앞선 정책방향 제시로 고객과 연구원과의 유기적인 관계 구축 ▶도정 이슈가 될 만한 과제를 미리 선정하여 시의성있는 정책을 개발 ▶연구원 모두가 홍보마인드를 갖고 연구결과를 세일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발연에 정책개발 및 분석을 위한 T/F팀의 운영과 정책 집행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남도청 파견 근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지난해 총직원 40명 중 27명의 연구원으로 기본과제, 기획과제, 현안과제 등 총 181건의 연구실적(디자인부문 77건 및 연구구성사업 53건 제외)을 올려 1인당 6.7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으며, 소도읍육성사업 선정,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 총 829억원의 국비 확보 및 예산 지원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나무심기? 내친김에 새집달기까지

-충남발전연구, 청사 이전 1주년 기념 식목행사 가져



충남발전연구원은 4월 3일 오후 식목일에 즈음하여 김용웅 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이전 1주년을 기념하는 나무심기행사를 가졌다.

이날 연구원 주변에 심은 나무는 살구나무, 감나무, 매실나무, 가시오가피 등 유실수 중심의 20여 그루로, 각 부서별 자발적인 책임관리제를 통해 식수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했다.

이 없도록 했다.

또한, 연구원 주변 나무에 5개의 새집을 달아 1년 365일 새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식목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연구원의 '새 박사'로 통하는 환경생태연구부 정옥식 박사가 처음으로 새집달기를 제안하면서 "새집은 박새, 직박구리 등 몸이 작은 새를 위해 제작되었으며, 주변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충발연 김용웅 원장은 인사말에서 "식목일과 청사 이전 1주년을 기념하여 심은 나무인 만큼 내 몸과 같이 사랑으로 가꾸어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지난 5월 연구원이 장만해 준 새집에 곤줄박이와 박새가 둥지를 틀고 번식하고 있는 모습

청년구직자의 Mismatch 해소를 위한 대학에서의 진로·취업교육 심포지엄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4월 7일(화) 오후 1시부터 건양대학교와 공동으로 건양대학교 명곡정보관 6층 무궁화장홀에서 전국 100여개 대학의 취업담당자 및 기업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배출과 취업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손병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의 특별강연을 비롯하여 박찬수 건양대학교 취업매직센터장,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이영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등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대학의 취업교육 및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학의 취업촉진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이번 행사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청년실업문제의 해소를 위한 대학과 기업의 측면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뜻 깊은 자리였다.

전환기 휴먼뉴딜 인재육성과 상생지향적 지역발전 세미나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4월 15일(수) 오후 13시 30분부터 상생협력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과 공동주최로 천안시 나사렛대학교 제2창학관에서 충남도청, 한국교육개발원, 지역대학(건양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단국대, 백석대, 충남대, 한남대, 한서대, 신성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여성단체협의회, 충남발전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휴먼뉴딜 관련 인재육성과 상생지향적 지역발전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홍영란 본부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주제발표, 토론, 그리고 라운드테이블로 진행되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휴먼뉴딜 정책과 지역발전, 그리고 상생협력과 사회통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자리로 장기화 되어가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휴먼뉴딜 기반 인재육성으로 상생협력적 지역발전의 전략을 모색하고, 조직 내 갈등예방 및 기업과 취업자의 win-win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자리가 되었다.

■ 군특법 개정 관련 충청권 3개시·도 지역혁신협의회 향후 대응방안 간담회



2009년 4월 20일(월), 충남지역혁신협의회(협의회장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 주관으로 "군특법 개정 관련 충청권 3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향후 대응방안 간담회"가 충남발전연구원 1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간담회에서는 "군특법" 개정으로 인한 지역혁신협의회의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충청권 3개시·도(대전·충남·충북)의 관계관, 협의회 사무국장 및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주요내용으로는 향후 시·도 협의회 존치와 관련된 새로운 역할 부여, 기능전환 및 현안문제, 촉진과제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향후 광역권 또는 국가 단위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의 입장과 건실한 이익을 대변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자문제공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 조정할 수 있는 지역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고 조례제정 등을 통한 자구책 마련과 3개시·도간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 2009년 제1회 지역경제연구회 개최

— 충남지역혁신협의회,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 공동주최



2009년 5월 14일(목), 충남지역혁신협의회와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회「지역경제연구회」가 "신정부의 지역발전정책구상"이라는 주제로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산업연구원의 장재홍 연구위원이 "신정부의 지역정책발전구상"에 대해 발표하였고, 지역경제연구회 회원들의 심도깊은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역경제권의 계획안 수립과 예산안 집계, 기초생활권 계획, 초광역벨트 등 지역발전정책과 활력 넘치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자율현상사업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충청남도 금강수계 주요하천의 관리수질 설정을 위한 워크숍 개최

- 충남발전연구원 충청남도수질총량관리센터 주최



충청남도와 충청남도수질총량관리센터는 「제2 단계 충청남도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을 초청하고 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과 자치단체별 주요하천의 관리수질 설정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계획 수립과 원활한 총량관리제 추진을 위하여 4월 9일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이상진 충남수질총량관리 센터장의 '충청남도 금강수계 주요하천의 관리수질 설정(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께 충청남도 및 9개 시·군 수질오염총량제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2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의 진행정도와 자치단체별 주요하천에 관리수질을 설정하여 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해 2단계 총량관리제 시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향후 추진방향과 단계별 계획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자치단체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관련 애로 및 현안사항 등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청남도, 시·군, 연구기관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금강 살리기 관련 갈등현장 지원체제 구축 모색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은 2009년 주요사업으로 갈등현장 지원체제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포럼의 최병학 운영위원장(충남발전연구원 지역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4월 10일 충남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금강 살리기 공동협력 포럼」에서 “성공적인 금강 살리기를 위한 시·군 공동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하였다.

또한 포럼사무국에서는 지난 5월 11일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4대강(금강) 살리기(안) 지역설명회(충남)에 참석하여,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사업추진본부의 홍보동영상 시청, 마스터플랜(안), 패널토론, 주민의견 등을 청취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금강 살리기 사업 추진에 있어서 다양한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본 포럼에서는 향후 금강 살리기 사업 추진 관련 갈등예방관리 강화사업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갈등관리 모니터링 제도와 민·관 협력 모니터링 센터의 도입 및 설치를 검토 중에 있다.

“사회갈등포럼”과의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협력체제 강화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은 2007년 8월 20일 상호협력 MOU 협약을 맺은 사회갈등연구소(소장 박태순)의 “사회갈등포럼”과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27일 16시에 서울 사랑의 열매회관 지하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사회갈등포럼” 창립 발기인 대회에 본 포럼 운영위원장 최병학 박사는 창립

발기인 및 창립 실무위원으로 참석하여, 충남포럼의 운영사례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더불어 상생협력·갈등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또한 본 포럼에서는 4월 24일과 5월 22일에 열린 두 차례의 “사회갈등포럼”의 실무회의 등에도 참석하여, 갈등관리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였으며, 6월 5일 14시부터 사랑의 열매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사회갈등포럼” 창립 기념 토론회 및 창립대회에 참석하여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으로 발생한 서귀포 강정마을 갈등 현황과 공동체 회복방안”에 대한 토론을 청취하였고, 다양한 갈등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앞으로 충남포럼과 “사회갈등포럼”간의 지속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협의하기도 하였다.



원고모집



열린충남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열린충남은 충남 발전에 관한 연구논문, 정책제언 등
참신한 내용과 정보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원고투고 |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 참조 (작성요령, 투고신청서 등)

| 보내실곳 | 충남 공주시 금흥동 101 충남발전연구원 기획조정연구실

전화 (041) 840-1123 팩스 (041) 840-1129 E-mail : cdi@cdi.re.kr